

News

배드뱅크, 새 정부서 재등판…넘어야 할 산 '셋'

데일리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최근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 만들어달라는 방안 검토 주문

금융권 잠재 부실채권 규모만 25조원 넘을 것이라는 추산… 2회 이상 금융지원 받은 차주의 채권이 우선 정리 대상될 가능성… 업계에서는 모럴헤저드 우려 제기

농협銀, 적격대출 판매 이틀 만에 2분기 한도 소진

조선비즈

NH농협은행, 5일 기준 2분기 적격대출 신청 마감… 판매 영업에 나선지 이틀 만에 고객 몰리면서 동이 나 공급문을 조기에 닫아… 분기 한도 300억원

지난 1분기에도 2영업일 만에 1분기 치 조기 소진… 본격 금리 인상기 돌입 가운데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영향으로 주택 매수 심리 살아날 경우 적격대출 수요 증가 가능

다섯살 케이뱅크 흑자전환… 750만명이 계좌 만들었다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 출범 약 5년 만에 흑자 전환 성공… 작년 순이익 225억원… 가입자 수 빠르게 증가해 지난달 말 계좌개설 고객 약 750만명 넘어서…

특히 작년에만 고객 498만명 증가… 전체 고객 중 50% 이상이 작년 가입… 사측은 다양한 비대면 상품 토대로 소비자 편의 증대한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

1년새 50조 늘어난 기술금융…은행권 새 먹거리 부상

이데일리

17개 은행, 기술 신용대출 잔액 작년 말 기준 316조 3,615억원으로 집계… 전년대비 18.6% 증가한 수치

기술금융, 2014년 1월 도입한 이후 매년 증가세 이어가며 작년 7월 기준 300조원 돌파… 창업 기업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 찾기 나선 은행 수요 맞물린 결과

중·소형 생보사, 변액보험 2위 경쟁 '치열'

현대경제신문

작년 말 기준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약 5조 2,48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9% 증가… 미래에셋생명이 2조 9,439억원 초회보험료 거둬들여 점유율 56% 차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 활황 끝면서 변액보험에 대한 고객 니즈 높아져… 내년부터 IFRS17 도입 예정으로 부채부담 덜한 변액보험 판매 주력하는 것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현지 손보사 인수로 점유율 확대

아시아투데이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 현지 손보사인 Lippo General Insurance 지분 62.6% 인수 결정… 리포보험의 최대주주로 경영권 확보

코로나19 여파로 인도네시아 생보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필요성 커져… 앞으로는 손보사까지 영업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해 나갈 것

1400만 동학개미 잡아라…증권사 "주식 투자 더더욱 쉽게" 사활

e대한경제

증권사들, 자사 플랫폼 간소화해 투자자의 투자 편의성과 접근성 높이는 데 주력… 직관적 UI 도입하거나 서비스 제공 방식 간소화하는 개편이 대표적

개인투자자 중 30대 이하 젊은 투자자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 중… 핀테크 증권사들의 승부수 역시 기존 증권사들의 시스템 개편에 영향

미래에셋·메리츠 등 18社, 자사주 소각 마침표

이코노믹리뷰

1분기 중 주식소각 결정 공시 낸 상장사 총 18곳… 작년 동기간 10곳에서 2배 가까이 증가… 글로벌 불확실성과 요동치는 주가에 주주환원 움직임 빨라져…

미래에셋증권, 꾸준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 펼쳐…메리츠증권, 작년 3월 18일부터 체결한 신탁계약 219만 4,000주 소각 결정… 다율, 505만 1,165주 소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